

學校 文法에서의 助詞의 處理

李 應 百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學校文法은 學術文法에 根據하되, 반드시 窮極理論에서 結論지워진 것을 目標로 할 수는 없다. 하나의 方便이기 때문이다.

學校文法은 言語生活에서 表現과 理解를 正確하고 效率的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學習하는 것이다. 小國語學者 養成을 目標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知識으로서의 文法이 아니라 活用으로서의 文法이 되어야 한다.

1962년에 統一된 學校文法の 品詞는 名詞 代名詞 數詞 動詞 形容詞 冠形詞 副詞 感嘆詞 助詞의 아홉 가지로 되어 있고, 制定된 術語는 252個다.

그런데, 이들 品詞 分類와 學術語들은 上位區分에 屬한 것이지. 下位區分은 放置돼 있으므로, 學校文法은 결점데기만이 統一되고, 內實은 各人各색으로 如前 混亂에 빠지게 되어 있다. 文教當局의 早速한 處理가 必要하다.

助詞를 品詞로 認定 與否는 學術文法에서는, 여러 가지로 意見이 많아 早晚間에 어느 結末을 얻기는 어렵겠다.

그런 점, 年前에 文教部가 學校文法 統一을 前提로 文法 教科書 著者 外의 人士로 構成한, 文法 小委員會에서 8品詞와 “토”를 主張한 意見은 學界의 意見 對立을 折衝하는 좋은 方案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助詞를 獨立 品詞로 決定지은 學校文法에서는, “-(이)다”를 叙述助詞라 하여 助詞로 處理하였다. 이것은 “-(이)다”를 指定詞 乃至 語尾로 主張해 온 學說에 對해 斷案的인 處理를 한 셈이다. 指定詞라 할 경우, 語幹 곧 實質要素가 省略되기도 하는 現象은, 理論的으로 그것이 獨立品詞의 資格이 없다는 端的인 證據가 되겠다. 또한 語尾라 하면, 體言이 用言으로 代하는데, 가령 “고운 꽃이다”할 경우, “고운”은 틀림없는 冠形語이므로, 그 對應關係에서 矛盾이 일어난다. (註) 그러므로 學校文法에서 “-(이)다”를 一旦 助詞로 處理한 것은 現在의 處地에서는 不得已한 歸結이라 보겠다.

學校文法の 助詞 處理의 基準에 의하여 國民학교 國어 各學年 二學期 全教科書에 나타난 助詞를 모조리 추려 보았다. 複合 助詞까지 합쳐서 179個가 나왔다. 그 중 “-(이)다”系에 屬한 것이 83個로, 全體의 約半數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다”가 活用을 하는 데서 온 結果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다”助詞의 學校

註 이 점에 대하여는 金敏洙! 國語文法論研究 (1960) p. 191 參照

文法에서의 助詞로서의 位置는 相當히 重要的 位置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大體로 學校文法에서, 學校 級別에 따라 그 取扱의 範圍와 深度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國民學校에서는 具體的인 品詞分類등이 必要 없으나, 助詞가 文의 成分의 對應關係에서 重要的 位置에 놓여 있다는 것을 實例를 通하여 體得시켜야 하며, 中學校에서는 品詞分類는 勿論, 文章 成分도 區分하게 하되, 助詞의 大區分, 과 그 正確한 用法을 익히게 해야 한다.

高等學校에서는 中學校의 程度를 더욱 深化하되, 助詞는 格助詞와 一般助詞 程度로 區分 取扱할 것이요, 너무 細分하여 하나하나 名稱을 붙이는 것은, 格助詞에서 가장 普遍的인 것에 限하고, 되도록 避하는 것이 좋겠다. 古語와 現代語의 助詞의 比較 處理도 高等學校 課程에서 다루어야 한다.

一般的으로 助詞는 말과 말, 마디와 마디, 글월과 글월, 그리고 그들 서로 間의 關係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語尾의 活用과 함께 添加語로서의 國語의 特質을 가장 特徵있게 나타내는 要素이므로, 그 使用의 疎忽은, 理解와 表現에 莫大한 支障을 불러일으킨다는 事實을 充分히 認識시킬 것이며, 특히 同形助詞의 分別에도 힘을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助詞와 語尾의 區分 問題는, 學術文法에서 妥協이 全然 不可能할 경우에도 무엇이든 이름을 붙일 것 없이 實質的인 事實만을 다루어도 좋겠다. 術語를 하나도 쓰지 않고도 文法 意識과 그 應用力을 몸에 붙이도록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곧, 學術文法의 不統一이 學校文法에 부질없는 影響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